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116, Samseongyo-ro 16 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www.hansung.ac.kr

한성 **純** **보**
[純]

2019 Hansung University Magazine **Vol. 104**

**변화를 읽고
혁신을 이끌어
차이를 만든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상상력
그 차이를 만듭니다.





무한한 한성인의 상상력!

**바람에 실어
세상 끝까지
보내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창의융합교육선도대학 한성대학교

분야와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CONTENTS

Hansung University Magazine Vol. 104



06	Special Issue 한성창의융합교육연구원 4차 산업 첨단기술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을 실시하다	24	리드하는 한성인 3 한국공학한림원 신입 회원으로 선정, '로봇에 바친' 열정의 명예로운 가치	38	With Hansung • 소중하게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켜 준 배움의 소중함
08	Today INSIGHT 1 더 높아진 한성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에 자부심을 가지다	26	Today INSIGHT 4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일경험 중심의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전개하다	42	도전하는 한성인
12	Today INSIGHT 2 전공트랙제 도입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기틀을 강화하다	30	Today INSIGHT 5 2018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1위의 자부심으로 빛나다	47	하이라이트 뉴스
16	Today INSIGHT 3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한성의 새로운 풍경에 주목하라	34	Today INSIGHT 6 외부 연구 및 사업 수주 실적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룬다	48	한성뉴스
20	리드하는 한성인 1 성실한 노력이 빛어낸 빛나는 열매	36	Start UP Hansung •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을 꿈꾸다 • 커피 붐과 더불어 차 시장에 주목하다	52	한성 서포터즈
22	리드하는 한성인 2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이 곧 미래가 된다			54	발전기금 안내
				56	모집요강

발행인 이상한
발행일 2019년 7월 1일
발행처 한성대학교 대외홍보팀 | 02-760-4209
기획 · 디자인 라이즈



한성창의융합교육연구원 (High Success Creativity & Convergence School) 4차 산업 첨단기술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을 실시하다!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면서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와 사회,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상력·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 대학이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2017년 전면적으로 전공 트랙제를 선보이며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융합전공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대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전공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창의융합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 우리 대학은 창의융합교육 전담조직인 HS C&C School(High Success Creativity & Convergence School, 창의융합교육연구원)을 신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상상력 인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 '융복합 능력' 필수, 한성대만의 창의융합교육체계 개발

우리 학교는 작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전면적인 대학혁신을 위해 2019 대학발

전계획을 재정립하여 '미래를 디자인하는 창의융합 교육선도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비전을 수립했고, 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융합 인재양성과 학생성공 지원교육, 미래지향 교육환경을 대학발전계획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학생주도

의 창의융합 High-Success 교육혁신'이라는 사업목표를 수립했고, 전공 트랙제 기반의 창의융합교육 강화와 현장 중심 및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를 통한 교육혁신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창의융합교육 전담조직인 HS C&C School(High Success Creativity & Convergence School, 창의융합교육연구원)과 창의융합교육 공간인 상상파크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한성대만의 창의융합교육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의융합교육·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창의융합교육연구원(High Success Creativity & Convergence School)은 융합교육에 필요한 최첨단 실험실습과 교육·연구센터를 통해 AI·빅데이터, VR·AR, IoT·리빙랩, 스마트팩토리 중심의 융합교육과정, 융합 프로젝트 및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각 전공분야에서 첨단 기술분야의 활용능력을 지닌 전문인으로 육성, 2개의 전공트랙 선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중심의 융합전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의융합 교육중심의 교육·연구센터 구성

VR·AR 교육·연구센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한 문학, 역사, 패션 등 다양한 학제 간 융합을 근거로 창의적 콘텐츠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융합교육 모델 제공

AI·빅데이터 교육·연구센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학, 인문, 사회, 패션, 디자인 등의 다양한 전공분야에 적용 및 활용하기 위한 융합교육 모델 제공

IoT·리빙랩 교육·연구센터

디자인씽킹 기법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아이디어, 제품생산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융합교육 모델 제공

스마트팩토리 교육·연구센터

ICT, 인공지능, IoT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에 대한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융합교육 제공

더 높아진 한성대학교의 경쟁력강화에 자부심을 가지다

기획처

한성대학교는 두 차례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경쟁력강화는 물론 재정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며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학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기까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기획처의 성과를 소개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전체 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결과로 '인증' 획득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근거,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5년 단위로 운영되며, 2011년~2015년까지 1주기 평가를 진행했고, 현재 2015~2020년까지 2주기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지표는 5개의 평가영역과 10개의 평가부문, 30개의 평가준거로 구성되며,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인증을 받는 제도다.

한성대는 지난 1주기 대학기관평가(2013학년도 하반기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필수 평가준거 6개 항목(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 비율)의 요구 기준 값을 모두 상회하여 충족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평가보고서를 제출, 4월 24일~4월 26일까지 현지방문평가를 받았다.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에서 모두 충족하여 우수한 결과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증시점부터 5년(2019~2023)의 인증기간이 부여된다. 인증 후 2년 경과시 인증기준 유지에 대한 인증자격 모니터링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 등에 대처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대학 경쟁력의 큰 요인 중 하나인 재정지원을 양질의 대학에 집중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발전계획 및 성과,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되었다. 전국의 대학을 권역별로 나누어 평가한 1단계에서 한성대는 상위 60%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정부로부터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받게 되었다.

차별화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창의융합 교육 혁신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 지원, 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성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에서 최고 등급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입학정원감축 제외(자율감축), 19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3월 6일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자율협약형) 신청서를 제출해 3년간 총 2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2019년에 1차년도 사업비로 약 3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서 대학발전계획 중점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교육혁신, 산학혁신, 지역사회 연계 및 글로벌 혁신전략과 관련된 중점발전과제를 선정했다. 4개의 혁신전략 프로그램 ①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② 학생성공을 위한 학생지원체계 혁신, ③ 현장중심 교육체계 구축에 의한 산학협력 교육혁신, ④ 교육공동체 확대에 의한 글로벌-지역사회 교육혁신과, 각 프로그램별로 13개의 세부 프로그램과 39개의 추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최대과제는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성대는 트랙제를 기반으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평생교육특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의 컨설팅을 통해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한성대는 전공트랙제 고도화, C&C스쿨 설치 및 운영, HS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CEO발굴형 창업지원 체계 고도화, HS 명품강의 개발 등 다양한 혁신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 내 삶의 미래를 더하는 평생교육 중점대학, 미래플러스대학 |

4차 산업혁명시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체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한성대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역할변화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체제 선도'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플러스대학'을 신설해 유연한 학사제도 정착과 지역수요를 고려한 성인 맞춤형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이 'LIFE사업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으로 명명되면서, 1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년사업'에서 4년간 지원하는 '다년사업'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미래플러스대학은 LIFE사업에 선정돼 4년 간 33~35억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미래플러스대학은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및 특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과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직무역량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됐다. 2019학년도에는 법·행정학과(2020학년도부터 '융합행정학과'로 학과명 변경), 호텔외식경영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과 등 4개 정규 학위과정에 총 90명으로 출발했으며, 2020학년도에는 ICT융합디자인학과를 추가로 신설해 5개학과 118명 정원체제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2021년까지 210억 원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큰 재정지원을 받는 한성대학교”

노광현 기획처장

기획처에서 주관하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은 대학평가 및 대학 차원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는 일입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한성대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019~2021년 3년간 정부로부터 받는 210억 원은 한성대 역사상 가장 큰 재정지원을 받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시행됐던 대학구조개혁방안 1주기 평가에서 받았던 부진한 성적을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그간 '피를 말리는' 준비작업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한성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역량도 준비가 되었고, 재정적인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을 맞았다고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만의 교육모델을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천명한 만큼 차별화된 혁신지원사업을 정착시켜나가는 가운데 중급대학으로서 수도권 최상위 대학으로 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트랙제 도입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기틀을 강화하다

교무처

한성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체제를 학과제에서 전공 트랙제로 개편한지 3년차를 맞았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평생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대학교 1학년 때 다양한 경험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트랙제의 강점이다.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트랙제, 그간의 성과와 의미를 정리했다. 또한 교무처장이 사업단장으로 겸직하며 추진하고 있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배려한 트랙 선택 과정

트랙 가수요 조사 및 트랙선택

한성대 신입생이 1년 동안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 트랙을 경험토록 돕고 있으며 본 트랙선택에 앞서 가수요 조사를 시작한다. 트랙에 대한 정보는 입학 전 예비신입생을 위한 트랙설명회를 시작으로 학기 중 트랙기초 및 진로설계 교과목 이수, 교수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제공 받는다. 신입생의 트랙선택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진로 결정이기 때문에 대학본부에서는 트랙선택 시기인 1학년 말까지 트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트랙 선택 전에 학생진단검사와 함께 2차 트랙설명회를 진행하며 트랙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트랙선택을 위해 1년 동안 학교에서 제공되는 관련 교과목과 상담 및 설명회 등의 정보를 통해 신입생은 학년말에 2개의 트랙을 선택한다.

트랙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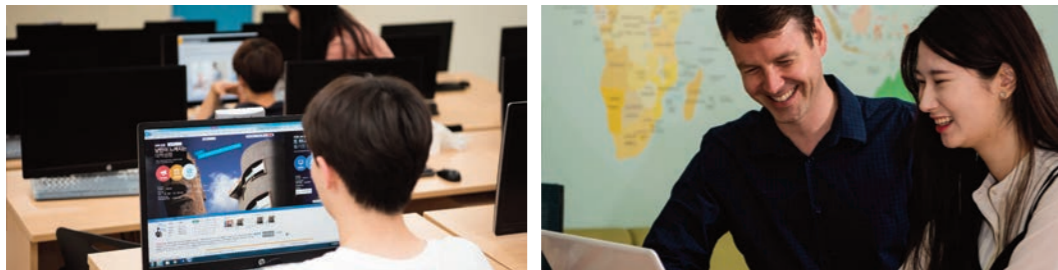
한성대는 트랙 선택 후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트랙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매학기 변경시기를 두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트랙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택한 트랙에 대해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기 재학부터 트랙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랙변경에서 2018학년도 1학기에 223명(1170명 재학생 대비 19.9%)과 2018학년도 2학기에 62명(988명 재학생 대비 6.3%)이 각각 트랙을 변경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 안에서 학기가 지날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트랙을 찾아감을 알 수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전공 만족도 상승

2018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트랙제를 바탕으로 한 전공 만족도가 14개 항목 중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고학년에 비해 전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트랙제에 대한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랙제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양성의 의미

2개 트랙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물리적인 융합이 가능하고, 여기에 2개 이상의 트랙이 참여하는 융합 교과목 개설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융합교육을 받게 된다. 전공 심화를 원하는 학생은



모과가 같은 2개의 트랙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마이크로컬리지(Micro College)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해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

트랙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융합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공트랙제 교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인 융합전공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트랙 간 융합교과목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확대하여 트랙 전공과 연계한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IPP사업단 |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발판

한성대학교 IPP사업단은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향상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4학년 학생이 대상인 '일학습병행제'와 3·4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사업초기단계부터 기업과 대학이 협의하여 NCS(국가직무표준)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는데, 이때 대학에서도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현장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에 취업을 확정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인재를 선점할 수 있고, 학생은 취업 걱정 없이 실무능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현장실습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현장실습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취업연계형 기업의 경우 실습종료 후에 취업으로 연계되고 있다. 학과와 트랙 구분 없이 3~4학년 학생이면 참여 가능하다.

타대학과 차별화된 학생 지원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성대는 2015년 1억1천만 원, 2016년 1억4천만 원, 2017년 1억1천만 원, 2018년 1억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채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실습생들이 건강문제로 실습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우수대학 선정과 교육부 2주기 평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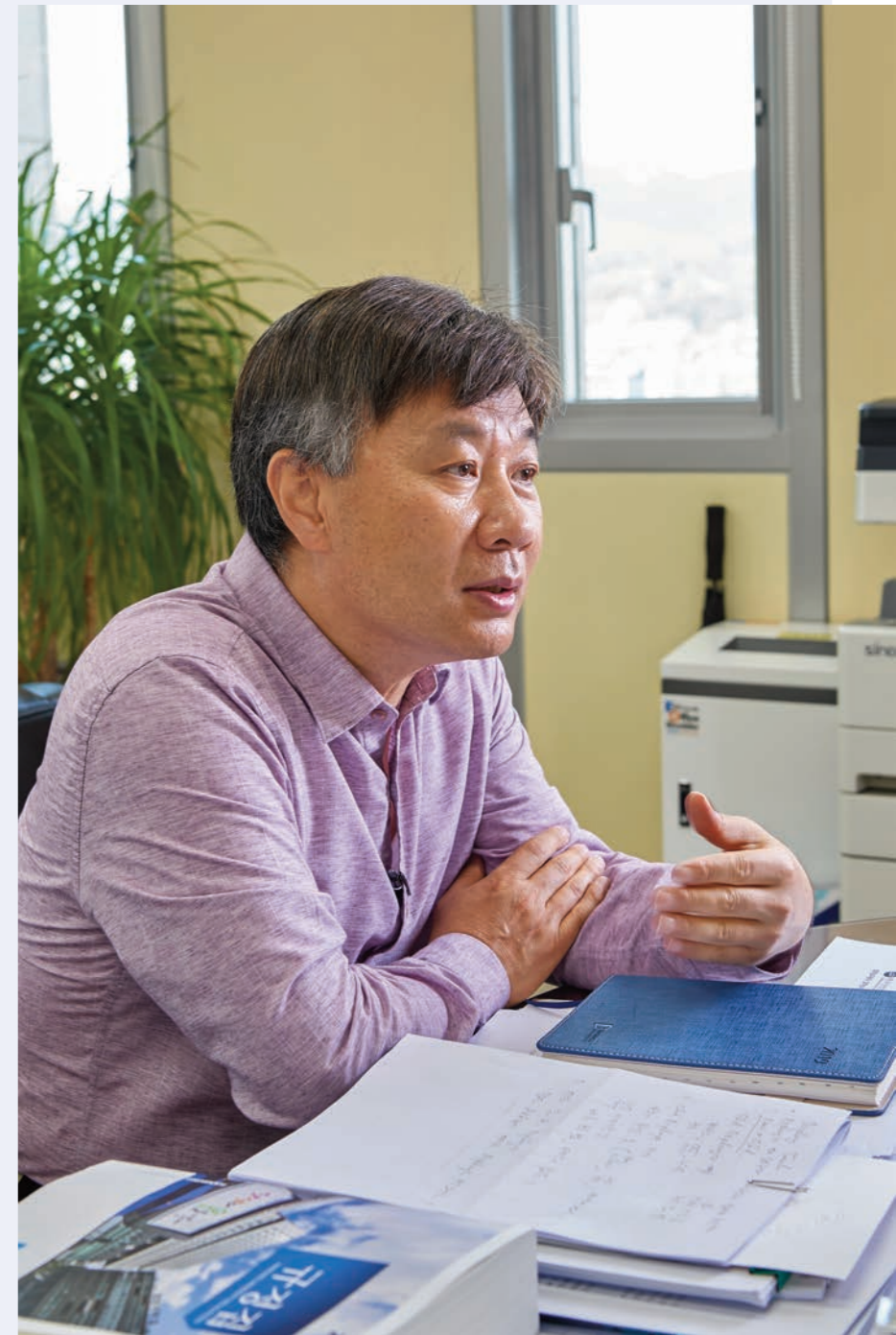
한성대는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평가'에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우수대학(A등급)'에 이어, 2018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대학(S등급)'에 선정됨으로써 타 대학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업 성과는 우리 대학의 교육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장기)현장실습, 산학연계교육 등의 실적과 이를 토대로 한 한성대 현장실습 교육모델 수립 등에 큰 영향을 주어 교육부 2주기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Mini Interview

“트랙제를 통해
융복합 사고를 갖춘
우수한 인재들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조세홍 교무처장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제도가 과제로 정착이 된 반면, 트랙제는 이를 전면적으로 깨뜨려보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융합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학과제가 정당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한편 전공을 선택하면 평생을 가야한다는 부담감, 전과를 하고 싶어도 성적우수학생에게만 해당되는 한계점 등으로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를 과감하게 깨보고자 도입한 것이 트랙제입니다. 지난 2월 한성대 트랙제 성과공유의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관계자들은 트랙제를 '한성대 모델'이라 지칭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트랙제는 교육의 주도권이 교수 중심의 공급자 위주에서 학생들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학생이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 트랙제를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 융복합 사고를 갖춘 우수한 인재들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한성의 새로운 풍경에 주목하라

총무처

한성대가 상상관 신축을 시작으로 창의융합 교육공간을 확충해나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도 2학기가 되면 창의융합형 복합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 실습공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6월 3일 착공, 9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총무처는 한성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상상파크, 상상브리지 공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상파크

상상파크는 창의융합형 복합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 실습 공간 조성 마련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 상상파크는 연구관에 설립되는 메이커스페이스, VR·AR교육연구센터와 공학관 A동에 들어설 AI·빅데이터, IoT·리빙랩, 스마트팩토리 교육연구센터로 구성되며, 현재 설계 검토 중인 스마트팩토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상상파크 지하 1층에는 시뮬레이터, 디지털 스튜디오, 모션캡처스튜디오 등 시설을 갖춘 VR·AR교육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지하 중층과 1층, 기존 상상마루 공간을 통합한 메이커스페이스는 연구관 전시실과 외부 공간을 개조한 공간으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룸, 3D프린터, 레이저커터, CNC 등의 기자재가 설치돼 필요한 학생들이 수작업을 통해 모형을 만들거나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그간 한성대는 학생들의 창의융합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창의융합 교육과 연구가 모두 가능한 상상파크를 구상하게 되었다. 창의융합교육 인프라인 상상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며, 한성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상브리지



상상홀

상상브리지

최근 새로 짓는 건물들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동선이 개선되고 있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고, 비가 오거나 한파가 닥쳐도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상상브리지를 설립하게 된 이유도 같은 생각에서다. 한성대는 상상관 2층을 메인 홀로 해서 미래관, 우촌관을 잇고 우촌관과 진리관을 잇는 연결통로를 조성해 건물 간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면서 학내 구성원의 이동 동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상홀

HS C&C Festival(창의융합결과물 성과공유대회), 각종 교내 창의융합 관련 시청각 전시회·시연회 등 재학생을 위한 행사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성대는 교내 창의융합 복합교육공간으로 상상홀을 구축했다. 상상홀에는 대형 빔 프로젝트가 설치돼 있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영화관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Mini Interview

“창의융합교육의 장으로서
한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기대합니다”

변대중 총무처장



상상브리지와 상상파크는 상상관을 중심으로 연결된 구조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창의융합교육, 복합교육을 위한 첨단 실습 공간을 조성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충분히 활용하여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만든 건물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불이 켜져 있고, 이 공간을 즐겨 찾는 학생들의 모습이 지속되도록 총무처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울러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노력이 빛어낸 빛나는 열매

- (주)리서치알음 최성환 대표 (경영학부 02학번)



안전하고 익숙한 보금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등지를 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증권가의 꽃'이라 불리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10년간 해오면서 눈앞에 놓인 화려한 '꽃길'을 벗어 던지고 국내 독립리서치라는 새로운 영역에 뛰어든 (주)리서치알음 최성환 대표. 경영학부 02학번 선배님이기도 한 최성환 대표를 만나 변화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증권가 리서치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최성환 대표가 운영하는 (주)리서치알음은 이제 출범한지 3년차를 맞은 신생이지만, 이미 증권가에서는 '족집게' 독립리서치로 이름이 나왔다. 증권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는 리서치는 무척이나 중요한 영역이다. 애널리스트 시절을 거치는 동안 기존 관행처럼 있던 리서치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최성환 대표는 자신이 직접 바뀌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독립리서치 회사를 꾸리게 되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돈 주고 사는 시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을 사면 오늘 무조건 오른다' 같은 신빙성 없는 문자서비스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받고 자 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묻지마' 식의 위험한 투자를 지양하고 양질의 정보들을 생산하는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리서치알음에서 제공하는 정기리포트는 매달 9,900원의 이용료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가입자 수가 400여 명을 넘어가고 있고, 리뉴얼이 되는 월요일에는 800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리서치알음이 꾸준한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증권사 리포트와 차별화된 내용 덕분으로, 지난해 주가 급락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유망 종목을 발굴해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리포트 제공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었다는 최성환 대표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건전한 비판과 논의들을 통해 투자시장의 건전성을 유도해가는 역할을 해나갈 생각이다.

성실하게 쌓아올린 노력이 곧 스펙

최성환 대표는 지난 세월 쏟아 부은 성실한 노력이 자신을 상징하는 스펙이 되었다. 유화증권에 입사한 2007년 당시만 해도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출신이었기에 다소 주눅들 수도 있었던 상황일 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최성환 대표는 학벌이 스펙이 되기보다는 얼마만큼 이 일을 좋아하고 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브랜드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취업에 대한 고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인 것 같

습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주식 관련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때부터 주식관련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모조리 따면서 부지런히 준비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3학년으로 복학하면서 스터디 멤버를 꾸려 매일 아침 7시부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간간히 술자리도 가지면서 평범하지만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이 최성환 대표에게는 지금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이기는 투자습관>의 저자이기도 한 최성환 대표는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이기는 습관'의 첫 걸음으로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꿈을 찾았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일찍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최성환 대표는 경영학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고, 향후 5년 간 매년 1000만원씩 장학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차례에 걸쳐 대학생 투자분석보고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이어오고 있다. 자신이 학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그는 재능 있는 후배들을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 번뿐인 소중한 학창시절을 의미 있게, 재미 있게 보냈으면 하는 소망을 전했다.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이 곧 미래가 된다

- (주)서광시스템 박영 대표(산업안전공학과 94학번)



아무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94학번 선배님인 (주)서광시스템 박영 대표가 생각하는 회사의 이념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한계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로 발전시켜 이를 회사의 자산이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덕분에 지금의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만큼 그는 생각을 크게 가지는 것이 곧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국내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의 포문을 열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일 것이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이 업무를 위해 수십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었지만 이제는 CCTV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무인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을 국내에 첫 도입한 곳이 바로 (주)서광시스템이다.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점차적으로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수가 25명에서 많게는 40명 가까이 되는데 향후 무인정책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적절히 맞아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무슨 일이든 처음이 가장 어려운 법. 무인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과다출혈’이라 할 만큼 연구비에 많은 투자를 한 박영 대표는 부도 직전까지 가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다. 우리 제품이 최고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도전을 기꺼이 ‘즐겨보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그의 목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0여 곳에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을 납품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현재 박영 대표는 40명 직원으로 연 매출 130억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대표로 내공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그에게도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던 학창시절이 있었다. 그는 입학할 때 웃으며 들어와 졸업할 때 울고 나가는 IMF세대이기도 했다.

“저희 때도 취업이 어려워 학교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졸업 즈음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동기들은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2, 3개의 자격증 취득은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선택하라

본인 스스로도 ‘그리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는 박영 대표는 모두가 소망하던 대기업에 대한 꿈을 접고 일찌감치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 사회인으로서 첫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가 회사에서 한창 일을 배워가던 중, 예전 면접을 봤던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지만 그

는 그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남는 선택을 했다. 이미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대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신했던 까닭이다. 아마 그때 큰 회사로 옮겼으면 한 파트만 열심히 파다가 지금쯤 조직에서 밀려나 치킨 가게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을 지도 모른다 말하고 웃어 보이는 박영 대표.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익힌 경험이 회사를 꾸려가는 경영인으로서 큰 힘이 된 만큼 그는 그때의 선택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많아 안타깝다는 박영 대표는 소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카카오편화’의 승자가 아닌, 현실에 기반을 둔 자신만의 인생에서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한성대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창의융합이라고 들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지요. 하루 2시간 정도만 휴대폰을 끄고 오로지 내 머리 속에서 뭔가를 구상하고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영 대표는 사회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어가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자기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공학한림원 신입 회원으로 선정, '로봇에 바친' 열정의 명예로운 가치

- 조혜경 교수 (IT 융합공학부)



한성대 IT 융합공학부 조혜경 교수가 한국공학한림원 신입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 정책과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에서 높은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에 기여한 최고 전문가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개인은 물론 학교 차원에서도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Q : 한림공학한림원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A : 회원 대부분이 연구 중심 대학에서 좋은 업적을 세운 분들이다 보니 우리 학교와 같은 교육 중심 대학에서 똑같은 업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육 중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나름의 R&D모형을 가지고 꾸준히 해 온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동안 공학과 교육을 접목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사실 공학교육은 초, 중등과정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야여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들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교육 중심 대학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Q : 어린이용 로봇 콘텐츠 저작도구인 'SiCi(Smart Ideas for Creative Interplay)' 개발을 비롯해 로봇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로봇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매체여서 종이책이나 게임과 같은 사이버공간보다 더 친숙하게 와 닿을 수 있어요. 어릴 때 보고 느꼈던 기억이 평생을 가듯이 교육 현장에서도 하나를 배운 것이 평생을 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중요한 콘셉트를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때 로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한 제안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SiCi'를 선보였는데 다행히 좋은 반응을 보인데다 코딩 교육의 붐이 불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리 학교를 비롯해 학부과정 안에서 로봇에 관심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로봇을 만드는 것부터 다 해볼 수 있는 학부교육용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Q : 국내 최초 여성 로봇공학자로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 '최초',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데 사실 부담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자한테 어울리는 연구, 남자한테 어울리는 연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로봇 쪽에 여성 연구자가 많지 않다 보니 여성이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여성이기에 좋은 기회가 생기는 부분

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성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또 후배들이 많은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Q : 앞으로의 계획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학술적인 일을 할 수 시간이 그리 오래 남아 있지 않으니 막연한 생각이지만 사회공헌을 위한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용의주도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보다는 이제껏 해오던 대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해나가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뭔가에 몰입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분석하는데 쓰는데, 인생은 최적의 선택을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연의 요소가 작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뭐라도 결정하고 경험하면 배우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일경험 중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전개하다

학생처

우리 사회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범국가적인 대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성대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2019년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운영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학생처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현장중심의 경험을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형 현장인재 양성의 요람 - 현장실습지원센터

올 3월에 문을 연 학생처 산하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체계적인 현장실습운영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특히 산업체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무형 교과목을 개발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수 실습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이밖에도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한성대의 전략목표인 현장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부합하고자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8~2019년에는 신규 사업을 유치하여 일경험에 대한 재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참여 학생의 수도 2017년 263명, 2018년 411명으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2018년에는 일본 인턴십과 세종학당 문화인턴십을 추진해 해외 인턴십을 확대하고, 서울시 주관의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78명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시 사업은 참여자의 38%가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얻었다. 2019년에는 추가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서울시정 대학생인턴십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스쿨사업을 유치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전공분야 일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업무 태도와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검증,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대학 -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졸업(예정)자가 우수 강소기업에서 3개월 동안 실무를 체험하고 채용연계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사업으로, 한성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사업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졸업(예정)자, 수료자 등 60명을 선발해 3개월 간 우수 강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해당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운영대학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에서 2~4개월 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채용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정 대학생인턴사업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실무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스쿨사업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한성대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 해외진출기업, 해외유망직종 등에 취업을 연계하는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AWS를 활용한 클라우드 SW개발자양성과정'을 통해 IT 및 일본어를 교육하여 현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추진하는 일경험 중점사업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2018~2019)	K-Move 스쿨사업 (2019)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2019)	서울시정 대학생인턴사업 (2019)
주관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대상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생, 졸업생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재학생
인원	60명	20명	40명	12명
내용	실습 3개월 채용연계	연수 7개월 일본IT채용연계	실습 2개월~4개월 채용연계	실습 2개월 체험형
예산	4억 3천만원	2억원	3억원	3천 8백만원

Mini Interview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과 진로,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가겠습니다”

최천근 학생처장

한성대 학생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고민하는 부분이 취업과 진로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턴십은 물론 서울시일자리, 장학재단사업을 비롯해 학생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각 과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습득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생각에만 머무르고 행동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해외에 나가서 인턴십을 하거나 교환학생을 가거나, 혹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강이나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하게 행동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꿈만 좇으며 내 적성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참여하고 행동하십시오!



2018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1위의 자부심으로 빛나다

학술정보관

한성대 학술정보관은 교내외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해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융합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 및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독서문화축진을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학술정보관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6개 유형 13회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연간 1,300여명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2016학년도에 비해 참가자가 430%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서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공유하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독서전문홈페이지인 '상상독서'를 구축해 월 평균 2,060명의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함께 책임기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독서토론'을 테마로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그룹별로 모여 책을 읽고 책과 관련된 지역을 여행해 보는 '상상독서문학기행'을 새롭게 신설했다. 앞으로도 학술정보관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를 접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가치를 공유하며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독서공동체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서관 정보화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한성대 학술정보관은 효율적인 전자자원을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HTML5 적용 웹기반 통합형 도서관운영시스템(LIBERTY)을 도입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 도서관 홈페이지로 리뉴얼했다. 스마트 기기 이용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모바일 학생증 이용, 모바일 자리배석시스템과 같은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도 반응형 웹 기술 기반 독서전문홈페이지 '상상독서'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학술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한성연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학술정보관은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 협력 활성화 분야' 소규모 대학 중 1위, 2013년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진행해 온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초·중학생들에게 인문학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서직업 체험, 성북구 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전개해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도서관은 학습, 독서, 자료 열람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 복합학습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술정보관도 러닝커먼스 공간인 상상커먼스 조성, 로비 및 멀티미디어실 공간 개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그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2019년 2학기에는 상상관과 학술정보관을 잇는 연결통로 사업을 전개해 3층 자료열람실을 L-COMMONS로 조성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물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창의 및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학술정보관 5개 발전 계획 및 비전(2019-2023)

비전	대학의 창의 융합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목표	창의 융합교육 및 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정보자원 공유 및 활용 기반 강화	스마트 도서관 환경 조성	교육과 문화, 소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강화
추진 전략	정보자원 확충 및 효율적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정보자원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도서관 시설 및 운영 환경의 내실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 협력 활성화
추진 과제	교육 및 학술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정보자원 확충	HS-SC(Subject Curation) 서비스	C&C Library 조성	상상독서 프로그램 활성화
	전자자원 통합운영 시스템 관리	HS-Scholars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학습 Commons 운영 개선	Information Literacy 교육 품질 제고
	복큐레이션 서비스	Historical Archives 구축 및 서비스	RFID 기반 도서관리 기반 도입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도서관 홍보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융합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자원 확충 및 정보접근성 강화 고도화된 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한 향상된 학습 및 연구 환경 제공 학습활동 공간 개선 및 도서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적 기여를 통한 도서관 역할 확대 			

Mini Interview

“교육,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어갑니다”

강순애 학술정보관장



한성대 학술정보관은 매년 다양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선보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서관 정보화 환경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 대학도서관 시범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술정보관은 스마트도서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문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학의 창의융합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교수,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하는 도서관',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입니다.

외부 연구 및 사업 수주 실적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룬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업무는 크게 연구기획, 연구관리, 특허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나뉜다. 또한 정부 및 민간 재정 지원사업의 기획과 정보 수집 및 제공에서부터 사업 수주 후 각종 협약 변경, 연구비 집행, 정산에 이르는 연구 개발과제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경영전문가 운영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 특허전략개발원에서 발주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 관리 및 활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시키고 있다. 파견기간은 2019년~2021년까지 3년간이며, 우초관 608호에 특허경영지원실을 설치, 특허경영전문가가 상주해 특허관련 지원업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기술파트너(공학컨설팅센터)지원사업 선정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사업은 대학의 기술전문가(교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성대는 지식서비스, 전기·전자, 화학, 기계소재,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코디네이터 교수 체계를 확립하고 학내외 100여 명의 기술전문가와 함께 지역산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기술개발 능력향상과 사업 역량강화로 인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기술전문가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대학 소속 특허전문가, 대학 보유 기자재,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비R&D분야의 실질적 지원 및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 수주확대 도모

산학협력단은 국가R&D과제 수주 확대를 위해 우초관 611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지원실'을 설치, 전담 직원을 배치해 연구지원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수주확대 촉진을 위해 사업 제안에 필요한 제안서 인쇄비 및 관련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연구와 교육활동에 지원하는
재투자 형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관우 산학협력단장

대학의 중요한 영역은 교육과 연구이며, 산학협력 없이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교육도 문제이거나 산업현장에 쓰이지 않는 연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은 대학에서 필수적인 활동이며 이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산학협력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력단의 외부 연구 및 사업 수주 실적은 해를 거듭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자체적인 수익모델로 운영되는 만큼 향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기술사업화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원을 얻게 되고 그렇게 얻어진 수익금을 다시 교수님들의 연구활동, 교육활동에 지원하는 재투자 형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을 꿈꾸다

비주얼인사이트 김홍배 대표



(좌)비주얼인사이트는 지난 2017년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김홍배 교수가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과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을 기반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매한다. 2018년에는 기업의 보유 역량과 기술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산업부 연구과제로 어린이 페르소나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페르소나 기반의 어린이 성향 진단 및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비주얼인사이트는 서비스디자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툴킷을 개발해 2017년 한국산업디자인협회와 핀업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의 잇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스타트업 3년차를 맞아 내실 있는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전문가를 위한 소비자 페르소나 측정 툴킷, 디자인 평가 툴킷, 아이스 브레이킹 툴킷 등을 개발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교육용 툴킷으로 '잼톡' 시리즈를 개발

해 시판 중에 있다.

김홍배 교수는 몇 년 전만 해도 교수가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최근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진 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교수님들 가운데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연구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비즈니스와 접목시킨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큐브의 첫 수혜자로서 스타트업들이 발전적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학교와 경영컨설팅에 도움을 준 지구파트너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비주얼인사이트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품을 이용한 교육, 컨설팅으로 기업 중심의 전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B2B 중심에서 좀 더 대중화된 B2C 중심으로 기존 사업에 빅데이터, IoT 등을 결합한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플랫폼 서비스를 발전시켜 국내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커피 붐과 더불어 차 시장에 주목하다

꽃차 브랜드 꽃물 김보민 대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것이 직장인의 로망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이 있고, 특히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서 커피 음료 대용으로 각광받는 것이 꽃차다. 커피를 못 마시는 김보민 대표가 꽃차 브랜드 '꽃물'를 론칭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든 이유기도 하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펌에 근무하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였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좋아하는 꽃으로 뭉가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권경숙 명인을 따라다니며 본격적으로 꽃차 공부를 시작했고, 자신이 맛있게 제조한 꽃차를 유통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스타트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김보민 대표는 커피시장도 크지만, 차 시장도 무궁무진하고 점차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주목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블렌딩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취향과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한성대 창업기업공모전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과 인연을 맺은 김보민

대표는 지난 5월부터 성곽마을 카페 '마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혼자 제조공장에 근무하면서 1인 창업기업을 시작했는데, 경영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상큐브에 입주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창업지원단에서 저를 보육해주시고, 지구파트너스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보민 대표는 청년창업을 생각한다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아 시작하고, 당장 큰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신이 행복하고 재미있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해내고 이 일을 오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허진 교수(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모든 일이 다 그러하겠지만 외식사업은 산지식과 경험이 절실하다. 현장경험이 없는 창업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론을 수반한 산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탄탄한 기반을 쌓고 있는 (주)케이씨푸드시스템 허진 대표가 한성대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기도 하다.

외식사업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다

허진 대표의 이력은 다소 특이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잡지사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아가던 그가 '과장 딱지'를 달자마자 사표를 내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이다.

“한 몇 년 회사에 몸담고 있으니 내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길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외식의 ‘외’ 자도 모르고 시작한 터라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일단 저질러본 거죠.”

멋모르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제법 돈도 벌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또 실패의 쓴 맛을 맛보기도 했다. 그 실패가 아무런 경험치가 없었던 허진 대표에게는 큰 인생 공부가 되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리 과정 하나하나를 배우고 독학으로 경영 공부를 하면서 현재 안정된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허진 대표는 지난 2007년 한성대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과 그간의 경험을 접목해 트렌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수업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필드와 이론이 접목되어야 시너지를 이룬다

외식사업 대표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그가 대학원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서부터다. 당초에는 외식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되겠다는 가벼운 생각이었는데 자리를 채운 250명 정도의 진지한 얼굴을 보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한다.

“나이 들어 다시 학생이 된다는 기분이 제법 괜찮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배웠던 소중한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허진 교수는 만 10년 간 가르쳤으니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보람이 큼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호텔 조리부에 오래 계셨던 분, 전문대학 교수, 요리강사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요. 조리 분야에서는 최

고 전문가들이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취약한 경영부문을 가르치고,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필드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허진 교수는 성공과 실패를 오가며 경험한 산지식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사회에서 외식이 3D업종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외식이 하나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식사업은 틈새시

장이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해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최고의 화두인데 외식사업도 이제는 IT를 접목하는 등 새로운 틈새시장을 찾아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허진 교수는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학부과정이 생겼으면 한다. 학부-대학원-박사 과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허진 교수는 요즘 특성화 교육으로 가는 추세니 언젠가 그 날이 오지 않겠냐 말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켜 준 배움의 소중함

박남규 단장(사)케이에스콘설팅지원단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33년의 세월을 금융인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보냈고, 은행 지점장에서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배우고 성장하며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케이에스콘설팅지원단 박남규 단장. 그를 보면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지천명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박남규 단장은 대학원을 '내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표현을 한다. 은행 지점장 시절, 중소기업에 상대하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늘 궁금했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일 년에 서너 개의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가진 역량을 성과와 연결시키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부도가 나면 기업도 어렵지만 직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고 은행도 피해를 보게 되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손실이 큼니다."

박남규 단장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지원이 최선이 아니라 경영컨설팅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경영지도자격증을 취득했고, 관련 공부를 더하고 싶어서 찾은 곳이 한성대 지식컨설팅대학원이었다. 그가 한성대를 선택한 이유는 중소기업전문 컨설팅전문대학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유일한 서울권 대학이고, 무엇보다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했다.

"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적인 목적, 사회적 목표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시작한 도전, 박남규 단장에게 지식컨설팅대학원에서의 배움은 그가 바라는 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하라

(사)케이에스콘설팅지원단은 박남규 단장을 비롯해 40명의 대학원 동문들이 만든 컨설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대학원에서 컨설팅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충실히 배웠으니 직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해주는 기회를 창출해보자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

서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정부컨설팅사업,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박남규 단장은 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잘 실천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진다.

"2014년부터 시작해 매년마다 중소기업을 발굴해 무료로 컨설팅 진단을 해오고 있는데, 기업에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회원 개인에게는 경력을 쌓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공공의 목적을 띠는 만큼 지식컨설팅 대학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원단 구성원 40명은 현역시절 컨설턴트로 활동했거나,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임원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사회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인 만큼 국내 컨설팅분야 대학원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하듯이 나이 들어 시작한 공부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우리 대학원에 정이 많이 가요. 토요일 전일 수업이라

가족들에게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자식들에게 공부하는 아버지, 현역에서 물러난 지금도 활동하는 아버지, 학위논문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라 자랑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대단한 꿈이 있겠느냐'며 박남규 단장은 균형감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고 웃는다.

"우리 지원단이 추구하는 이상이 공유하고 혁신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젊을이라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 애로사항도 있지만 추구하는 가치를 잊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전을 향해 한걸음 내딛는 용기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미디어아트 어워드 우수상 수상

글. 김현중(ICT 디자인학부 15학번)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하여 강필준(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13학번)과 이준모(시각·영상디자인전공 13학번) 세 명으로 이루어진 '삼선동 교복's' 라는 팀입니다.

이번 대회 결과는 매우 좋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았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분야라 시행착오도 있었기에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뽑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규모의 공모전에 입상하고 본 작품이 6월까지 롯데타워에서 상영되는 등 학창 시절에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먼저 필준이 형한테 제안이 왔었는데, 새롭고 잘하는 형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한꺼번에 기말 프로젝트 과제들과 겹쳐있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쪽보단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촌관 109호에 등지를 틀고 세 명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잠은 항상 우촌관에서 잤습니다. 준모형은 아예 캐리어에 2주치 분량의

옷을 싸들고 와서 지냈고, 저 또한 가방에 옷을 챙겨서 숙식을 학교에서 해결했습니다. 낮에는 수업과 과제를 하고, 저녁과 새벽에는 공모전 작업을 하는 바람에 수업시간에 즐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꺼려했던 저에게 먼저 손내밀어준 두 선배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전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2D를 넘어 3D 모션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님들 중에 유명한 3D 모션그래픽 디자이너인 김그륜 선배님이 있습니다. 선배님과 같은 실력 있는 모션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다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수익률 우수부문 1위 수상

글. 유정현(무역학과 16학번)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하여 윤선우, 이민영 모두 무역학과 16학번으로 팀을 구성해 DB GAPS 투자대회에 지원했습니다. 평소 실제 투자와 관련해 관심이 많기도 했고, 팀원들 모두 이번 대회를 계기로 주식투자에 대해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투자대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의투자대회라고 들었을 때에는 실제 주식투자처럼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평범한 대회인 줄 알았지만, 미시적으로 주식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거시적으로 세계경제를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회였습니다. 투자대회를 진행할 때 우리 팀이 가장 고려했던 사항은 지수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였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가가 매일 변하고 대회 참가팀들의 수익률 순위 또한 계속 바뀌면서 우리 팀이 1등을 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뉴스들을 놓치지 않고 투자 비중을 변경했던 것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대회 중에 수익률 1등을 1~2주가량 유지했던 시기가 대회에 더욱

열정을 쏟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팀을 꾸려서 대회에 지원할 때에는 다들 공부를 하려는 마음가지였기 때문에 순위에 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고 순위가 내려가게 되니 팀원들 모두 다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해왔던 투자방식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순이익과 재무자율 등 그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미래 가치성을 판단해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면, 대회를 진행한 이후에는 재무제표는 물론 세계경제흐름이나 정치적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근로로 얻는 소득보다 자본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자본소득을 가장 쉽게 적은 돈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었고 대회 이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막상 주식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자본소득에 한 발 다가간 것 같아 대회에 참가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던 값진 경험

2018년 LG 글로벌챌린저 대상 수상

글. 박종대, 김진아(시각·영상디자인전공 13학번), 강소리, 박관우(시각·영상디자인전공 14학번)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모유케어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탐방 주제로 유럽을 탐방하고 온 'mamamoU팀'입니다.

저희 4명 다 전공이 디자인과이다 보니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국내외 논문과 서적을 모조리 찾아서 정독했고, 관련 의료법, 국내 법률과 모유 은행의 역사까지 주제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될 만큼 공부하였습니다. 한 번은 탐방 기관에서 '왜 디자인과가 이 주제를...?' 하며 의아해 하시다가, 저희의 계획서와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니 '닥터 킴'이라고 부르며 인정해주셨을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확실히 책상에 가만히 앉아 주야장천 글을 읽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니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종사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모유케어센터를 실현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착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모유케어센터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꿈과 비전

진아 : 입사 전에 시간이 있다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올해 8개월 동안 심없이 달려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달리고 싶습니다.

종대 : 남은 대학 생활은 아마도 졸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와 엘지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보낼 것 같습니다.

소리 : 여러 가지로 여전히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지만, 입사 전에 장기여행을 꼭 다녀오려고 합니다.

관우 : LG글로벌챌린저를 마무리하여 앞으로 남은 학기를 전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마치고 방학을 만끽할 예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곧 진정한 도전!

제12회 공개 SW개발자대회 금상 수상

글. 홍성문(컴퓨터공학부 13학번)

저희 팀은 저와 안형우(컴퓨터공학부 13학번), 유호진(컴퓨터공학부 14학번), 손다미(컴퓨터공학부 14학번)학생으로 이루어진 'Who Dares' 라는 팀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캡스톤 디자인, 공학경진대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Deeptector' 라는 프로젝트로 카메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사람의 행동을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원 모두 처음 접하는 딥 러닝이라는 분야에 도전하였고, 팀 스스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토대로 조금 더 프로젝트를 발전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는 생각을 시작으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개발하였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학생 부문 금상이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모두 처음 접하는 분야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려

고 해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나 모르는 개념들이 많아 처음에는 개발이 정말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 포기하지 않고 매주 목표를 정하고 공부한 후 서로가 알게 된 지식들을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 번이나 개발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여러 난관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끝나고 난 후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팀원 모두 개발자로서의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지금 팀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를 계기로 프로그래머로서 각자의 방향성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다

2018년 임베디드 SW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글. 박혜진(산업경영공학과 4학년)

저희는 '황도복송아팀'입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왜 팀 이름이 황도복송아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를 맡고 계신 황기태 교수님의 '황' 자를 따오고 다들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하거나, 전과한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을 따와 황도복송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산업경영공학과 주 전공, 컴퓨터공학부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저와 주 전공 부동산학과, 컴퓨터공학부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15학번 김서울,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부로 전과한 15학번 김지수, 전자정보공학과 주 전공, 컴퓨터공학부를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15학번 이태윤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열정적인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같이 전공 공부를 하고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회에 나가보자'라는 욕심이 생겼고, 졸업하기 전 전국 규모의 대회를 나가보자는 목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IoT 시스템의 대시보드 제작도구와 서버 개발을 하였는데, 이는 코딩 없이 대시보드를 제작할 수 있고, 가상 IoT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팀원들과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이 즐거웠고, 이 대회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회장소의 환경과 데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회 전날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잘 작동했지만, 네트워크 환경이 느려서 프로그램이 느리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새벽까지 노력한 결과 문제를 해결했고 대회를 무사히 치룰 수 있었습니다. 졸업 작품으로 시작해 임베디드 SW경진대회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일은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 능력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에 맞추어 세운 일정을 완수하는 능력과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Hansung News Highlight



한성인, 강경화장관과 '평화'를 이야기하다

본교는 지난 5월 1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초청 특강을 개최해 한성대 학생들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상한 총장, 최천근 학생처장, 글로벌역사트랙 황혜성 교수 등 한성대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생 600여 명이 참석하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및 외교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유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소개하면서 학생들과 같

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강 장관은 세계무대에서의 경험과 소회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한반도의 주인공이자, 세계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본인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외교정책과 평화정책을 보다 친근감 있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 VR·AR 리터러시 투어 교육 사업 선정

본교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 VR·AR 리터러시 투어 교육 사업에 선정됐다. VR·AR 리터러시 투어 교육은 전국 정보통신기술(ICT) 취약 지구 초·중·고(총 25개교)를 대상으로 VR·AR 체험 및 참여형 직업체험 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본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VR·AR·MR 체험, VR 제작, 어트랙션 VR 체험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상세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직무 및 취업 정보 공유를 위한 졸업생 멘토링 진행

본교는 지난 5월 28일 교내 상상관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직무 및 취업 정보 공유를 위한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의 취업특강 요청에 따라 총동문회가 각 분야에 종사 중인 졸업생을 섭

외하고 취업지원팀이 선후배간의 자리를 마련하여 성사됐다. 취업지원팀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희망 분야와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질문을 접수하여 5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멘토)과 이를 원하는 재학생(멘티)을 선발했다. 선후배 간 만남을 통해 재학생이 취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주관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 운영대학 선정

본교는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수 강소기업에서 2~4개월 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본교는 졸업예정자 4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2~4개월 간 우수 강소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종료 후 채용연계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보조금을 활용하여 근무 기간 중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주관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사업 운영대학 선정

본교는 서울특별시 주관하는 '2019년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사업은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하계·동계방학 8주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며, 서울시청으로부터

1,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하계 인턴십 운영을 위하여 본교는 3~4학년 재학생 6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8주 간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보조금과 교비를 활용하여 근무 기간 중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주관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2년 연속 운영대학 선정

본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2019년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며, 서울시로부터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졸업(예정)자에게 우수 강소기업에서 3개월 간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예정)자에 대한 채용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한성대는 2018년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해당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대학원생 2019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 논문 발표상 수상

정덕영 학생(일반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석사과정)이 지난 5월 18일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논문제목: 쿠마 켄고 공간에 나타난 내재적 및 맥락적 시간성 연구)을 수상했다. '공간의 가치와 빅데이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박성식 이사의 '공간의 가치'와 △삼우설계 이종준 부소장의 '데이터를 통한 건축프로그램 도출'에 대한 강의로 시작해, 전시논문 29편 및 구두발표 43편에 대한 학술발표를 진행했다.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본교는 지난 5월 22일 교내 미래관 DLC(Digital Learning Center)에서 전 직원과 조교를 대상으로 2019년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개인이 건전한 성문화 인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고남숙 전문 강사는 '미투운동의 변화'를 주제로 학교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본교는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17기 학생홍보대사 하랑 임명식 개최

본교는 지난 5월 15일 교내 상상관 9층 총장실에서 '제17기 학생홍보대사 하랑 임명식'을 개최했다. 임명식에는 이상한 총장, 박재홍 입학홍보처장 등 한성대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생홍보대사 19명이 참석했다. 제17기 학생홍보대사 하랑은 2018년부터 활동한 연임 9명과 2019년 새로 선발된 신입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입 홍보



대사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약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됐다. 올해는 특히 하랑 내에 미디어팀을 신설, 본교의 소식이 담긴 여러 콘텐츠(카드뉴스, 캠퍼스드라마, 라이브방송 등)를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주요 SNS에 게시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및 어르신 대상 사랑의 뷰티 봉사활동 펼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은 지난 5월 21일 교내 우촌관 4층 뷰티센터에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지역주민 및 어르신 대상 사랑의 뷰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본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삶(LIFE) 가치뷰티같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들이 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고 삶(LIFE)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뷰티 봉사에는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오경현 교수, 미용학 전공 학생 20명을 비롯하여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비아이티살롱(헤어 브랜드) 및 올라휴(에스테틱 브랜드) 소속 전문 디자이너 4명이 참가하여 뷰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능형콘텐츠표준화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

본교는 지난 5월 14일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지능형콘텐츠표준화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능형콘텐츠 기술의 동향 전파 및 지능형콘텐츠 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형콘텐츠표준화포럼은 지능형콘텐츠 관련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시장에서 필요한 표준의 적시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표준 협의체다.

행사에는 이상한 총장, 이관우 산학협력단장 등 한성대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오섬피아 민문호 대표이사, (주)나우테크놀로지 임종권 대표이사, 오픈소스진흥협회 박형배 회장 등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총장과의 점심식사', 학생들과 점심 먹으며 소통

본교는 지난 4월 18일 교내 상상관 12층 레스토랑(밀가옥) 및 9층 대회의실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학기 '총장과의 점심식사(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총장에게 전달해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18일 점심은 선착순으로 선발된 14명이 함께 했다. 점심 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해 총장과 자유롭게 토론했으며, 총장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학생 및 장



애학생도 참여하여 대학 적응을 위한 학내 소수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계기가 됐다.



2019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 선정

본교 암호동아리 퀀텀 안트(Quantum An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한국암호포럼이 주최하고 국가정보원이 후원하는 '2019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암호동아리는 한성대 퀀텀 안트를 비롯하여 총 8개며, 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는 연구 활동비 300만원과 포럼 주관 암호교육 및 워크숍 무료 참여 등의 교육 기회를 지원받는다. 퀀텀 안트는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양자 컴퓨터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양자 내성 암호의 동향과 특성을 학습할 예정이다.



이민·다문화트랙 및 스마트도시 계획트랙 재학생, 이주민도시재생 선진지 광주고려인마을 견학

이민·다문화트랙 및 스마트도시계획트랙 학생 30여명

은 지난 5월 1일 이민·다문화트랙 오정은 교수 및 스마트도시계획트랙 백성준 교수 인솔 하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인 '다문화사회의 도시공간 탐구'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이주민 밀집지역 도시재생의 의미와 실제 사업이 적용된 이주민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현 작가 초청 저자와의 만남 행사 개최

학술정보관은 지난 5월 9일 교내 미래관 DLC(Digital Learning Center)에서 김수현 작가 초청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5월 '학술정보관과 함께하는 나나랜드 : 독서를 통해 나를 알고 나답게 살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이 힘든 현실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김수현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주관 '2019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 선정

본교 공학컨설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9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1년간 8.4억 원, 5년간 총 4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은 대학의 기술전문(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 간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등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산둥청년정치대와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

본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4월 26일 교내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산둥성 지난시 소재 산둥청년정치대학(총장 장수밍)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뷰티 분야에서의 학술 및 학생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근거로 양 대학은 한성대 뷰티디자인메이저먼트학과와 산둥청년정치대 아트디자이너전공 간의 학술 및 학생 교류를 시작으로 향후 디자인, 패션,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전공에서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스카이베이호텔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

본교는 지난 5월 7일 교내 상상관 8층 중회의실에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스카이베이호텔(대표이사 변기호)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근거로 양 기관은 △학생 대상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교직원 및 학생의 호텔 이용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 △호텔 성장 및 경영성과 확산 등의 노력을 통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상상력·창의력 증진을 위한 상상력토크 개최

상상력인재학부는 지난 5월 7일 교내 미래관 DLC(Digital Learning Center)에서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갑 채동훈 대표를 초청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상상력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상상력인재학부 서은경 학장, 전신종 교학부장 등 한성대 관계자를 비롯하여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년 IPP형 일학습병행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대학(S등급) 선정

본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2018년도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대학(S등급)에 선정됐다.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은 취업준비생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됐고,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로 구분된다. 3·4학년 학생은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 현장에서 4개월 이상 장기기간에 걸쳐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 본교는 2015년부터 매년 45~50개 기업에서 130~170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소박한 진심

음식은 정성이라 했다. 그만큼 만드는 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건강한 식재료와 정성 담긴 손맛으로 한성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 장학 기금으로 기부한 한성 서포터즈 2곳을 소개한다.

막국수 한 그릇으로 충족되는 정성의 맛

명문막국수

메뉴 명태식혜, 비빔막국수, 메밀비빔막국수, 메밀물막국수, 메밀부침&전병, 들깨칼국수&수제비
주소 서울 성북구 창경궁로 317
전화 02-745-3389
시간 매일 11:30 - 21:00 명절 휴무
매일 15:00 - 17:00 Break time

한성대입구에서도 가깝고 성북동 맛집으로 이미 유명한 <명문막국수>는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음식점이다.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친필 사인이 그 이름처럼 '명문'임을 말해준다. 안주류부터 식사류까지 다양한 메뉴를 구비하고 있는 <명문막국수>는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가족 단위 손님부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단골로 보이는 손님들이 많다.

봉평에서 공급되는 국산 메밀로 직접 뽑아서 제공되는 면은 그 메밀의 향이 살아있어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막국수 외에도 메밀부침, 메밀전병 등 메밀을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명문막국수>의 김연옥 사장님은 한성대 근방에서 11년째 메밀막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성대와의 이어진 인연 또한 5년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데, 한성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주변에 많이 선전해 주었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익금의 일부를 한성대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는 이유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음식 또한 손님들에게 속이는 것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게 비결 아닌 비결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 보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한 서비스로 손님들의 마음을 여는 삼겹살 절대 맛집

고기굽는마을

메뉴 와규등심, 소갈비살, LA갈비, 삼겹살, 목살
주소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전화 02-742-0739
시간 매일 17:00 - 01:00

성북천을 따라 걷다보면 많은 고기 집이 있다. 수많은 고기 집 일대를 평정한 곳이 바로 <고기굽는마을>이다. 사실 삼겹살집이 맛집으로 등극하기에는 별다른 조리과정이 없기에 차별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고기 집의 생명은 고기의 질과 맛. 이곳의 시그니처는 바로 두툽한 두께를 자랑하는 삼겹살. 고기의 육즙으로 승부를 거는 집답게 함께 나오는 국내산 함초 소금과 국내산 참숯은 고기의 맛을 배가시키는 숨은 공로자다.

평일 저녁 웨이팅을 해야 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운 <고기굽는마을>의 또 다른 숨은 공로자는 이곳의 직원들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직원들은 그 경력만큼이나 전문적인 서빙과 정확한 굽기의 타이밍으로 최고의 맛을 손님들에게 선사한다. 여기에는 손님들이 찾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Before Service를 추구하는 사장님의 철학이 담겨있다.

고기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홍합조개탕과 비지찌개는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다. 또한 고기와 함께 나오는 새우 꼬치는 그 고소함으로 인기가 최고다.

한성대 근처에서 19년, 지금 이 자리에서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고기굽는마을>이 한성대와 인연이 맺은 것은 19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년 전에는 학생들과 같은 연배였던 전원호 사장님은 이제 교직원과 같은 연배가 되었다. 여전히 한성대 교직원들의 단골집으로, 1년에 한번은 총장님까지 방문하는 한성대 공인 고기 맛집이 <고기굽는마을>이다.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발길에 보답할 방법을 찾다가, 2017년도부터 한성대에 기부금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것은 손님에게 팔지 말자!가 제 소박한 음식 철학입니다. 최종적으로 손님상에 나갈 때까지 신경 쓰는 마음과 꾸준하게 음식의 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성대학교가 더욱 발전해 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맛난 고기를 제공하고 싶네요~”





한성대학교에 보내주신 사랑과 정성 힘찬 비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기부자 명단(가나다 순) |

(기부기간 : 2018년 9월~ 2019년 5월)

■ 1천만원 이상

곽성학, 신경숙, 이상한 총장, 이태화, 최성환, IBK기업은행, 산들푸드한성대1호점, 오상자이엘, 풍전F&B, 한성대학교 직원 노동조합 일동

■ 1천만원 미만

가이드삼정, 고기굽는마을,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나노트레이딩, 대학원 제21대 박사총원우회, 램스큐솔루션, 로보피아, 마르시스, 명문막국수, 미아금속, 성북커피학원, 썬들, 웨어잇, 에스디생명공학, 엠고즈(M-GOES) 장학금, 영어영문학과 79학번, 우리은행, 인천항만공사, 인터바스(주), 피플링크, 하이트진로홀딩스(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모델협회, 한국어문학부장학재단, 한성대학교 총동문회, 한성대 직원동문장학회, 한성토익강좌 수강생, 현대엠엔소프트

가성훈, 강관식, 강상구, 강순애, 강지현, 강창수, 경국현, 경기웅, 계획원, 곽동화, 권기중, 권오혁, 권용구, 권혁명, 권혁운, 권후관, 김계덕, 김귀옥, 김기중, 김덕섭, 김덕호, 김병권, 김봉수, 김선형, 김성윤, 김성자, 김수영, 김양진, 김연태, 김영아, 김예진, 김용식, 김용호, 김윤주, 김재열, 김중경, 김지현, 김창근, 김창현, 김태영, 김태현, 김현미, 김형석, 김형수, 김흥빈, 김희정, 나도성, 나은미, 남궁환, 노광현, 노금희, 노병국, 노은희, 노재환, 도경수, 문화식, 민경진, 박근칠, 박세암, 박영범, 박영애, 박인호, 박준철, 박지영, 박혜란, 백성준, 서영윤, 서은경, 성낙원, 손경연, 손병호, 신서윤, 신지영, 심진식, 안광준, 안국영, 안영무, 안홍열, 엄재용, 여대환, 염경순, 염정훈, 오민호, 오병섭, 오종근, 오지훈, 유상미, 유연우, 윤용선, 이규혁, 이기학, 이대웅, 이동원, 이상복, 이상원, 이상혁, 이성민, 이애용, 이용만, 이은현, 이응권, 이재석, 이종은, 이창원, 이혁규, 이호신, 이후진, 이희돈, 이희봉, 이희영, 익명기부자1, 임기흥, 임동혁, 임병준, 장길용, 장명희, 정미영, 정순선, 정여진, 정우환, 정은영, 정재호, 정진호, 정호섭, 조민, 조규태, 조보경, 조성권, 조세홍, 조용훈, 조자연, 조준행, 주영혁, 지혜경, 최병수, 최윤석, 최정우, 최천근, 최형규, 최황수, 한건희, 한기범, 한상민, 한희조, 함영진, 허영훈, 허준영, 현진환, 홍승린, 홍희경, 황성태, 황정현, 황혜성

한성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인 / 약정인	성명(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개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 성명: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과정 입학년도: _____ 대학(원): _____ 학부(과): _____ 전공: _____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총장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소속: _____		
	연락처	주택주소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직위	
		E-mail			핸드폰	
우편물/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발급 희망					
기부(약정)액 <input type="checkbox"/> 기부 물품 <input type="checkbox"/>	금 _____ 정(W _____)					
발전기금 지정분야	<input type="checkbox"/> 대학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학생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대학건축기금 <input type="checkbox"/> 대학원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대학원건축기금 <input type="checkbox"/> 학과(부, 전공)발전기금 (_____ 학(부, 전공)과) <input type="checkbox"/> 학과(부, 전공)장학기금 (_____ 학(부, 전공)과)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정 (_____) ※ 학교발전기금 중 장학기금은 학생을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없습니다.					
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	201 _____ 년 _____ 월 일까지 납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201 _____ 년 _____ 월부터 201 _____ 년 _____ 월까지 (_____ 회) 분납	월납부액	_____ 원		
납부 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기업은행 : 689-000276-01-946		예금주 : 한성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급여 공제	※ 본교 교직원만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입학홍보처 대외홍보팀 (우촌관 6층 603호, TEL : 02-760-4209, FAX : 02-760-4207)				

위와 같이 한성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약정)합니다.

201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기부(약정)인: _____ (날인/서명)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2020학년도 한성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 2020학년도 수시 전형 요약 및 모집인원 |

구분	정원내/외	전형명		모집인원(명)		(B)-(A)	비고
				2019 (A)	2020 (B)		
수시	정원 내	학생부 교과	적성우수자	382	380	-2	
			교과성적우수자	366	370	+4	
			특기자 미용 특기	4	4		
		학생부 종합	한성인재	160	160		
			상상SW특기자	15	15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45	45		
			평생학습자	10	38	+28	미래플러스대학(성인학습자) 학과 신설
		실기	실기우수자	103	103		
			특기자 무용 특기	6	6		
		정원 외	농어촌학생		57	58	+1
	특성화고교졸업자		21	21			
	특성화고교졸재직자		80	80			
	재외국민과 외국인		29	29		재외국민및외국인모집요강 별도 공지(입학 홈페이지)	
	수시 모집인원(비율)				1,278 (77%)	1,309 (79.3%)	

| 2020학년도 수시 주요 사항 |

모집시기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	적성우수자 ▶ 전형방법 : 전공적성고사 40% + 학생부(교과) 60% ▶ 적성고사일 : 2019. 10. 20(일) ▶ 출제영역 및 고사시간 : 국어 30분항 + 수학 30분항(수학나형에서만 출제) ※ 기출문제 : 본교 입학홈페이지 - 자료실 - 영항평가 - 적성고사 참조
		교과성적우수자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학생부 종합	한성인재 ▶ 전형방법 : 서류평가(자기소개서, 학생부) 60% + 학생부(교과) 40%
		상상SW특기자 ▶ 전형방법 : 1단계 서류평가(자기소개서, 학생부) 100% (5배수) 2단계 1단계 60% + 면접고사 40%

| 2020학년도 수시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계열 / 단위	반영비율	반영교과	수능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교과	적성우수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학생부(교과) 60% + 전공적성 40%	국/영/수/사	없음	
		IT공과대학	국/영/수/과			
	교과성적 우수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생부(교과) 100%	국/영/수/사	주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IT공과대학	학생부(교과) 100%	국/영/수/과	야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특기자 미용특기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생부(교과) 100%	국/영/수/사	없음		
학생부 종합	한성인재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서류평가 60% + 학생부(교과) 40%	국/영/수/사	없음	
		IT공과대학	국/영/수/과			
	상상SW특기자	IT공과대학	1단계 : 서류평가 100% (5배수)	-	없음	
			2단계 : 1단계 60% + 면접 40%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회적배려대상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서류평가 60% + 학생부(교과) 40%	국/영/수/사	없음	
		IT공과대학	국/영/수/과			
	농어촌학생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서류평가 60% + 학생부(교과) 40%	국/영/수/사	없음	
		IT공과대학	국/영/수/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IT공과대학,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서류평가 60% + 학생부(교과) 40%	전교과	없음	
	평생학습자	융합행정학과(야) 호텔외식경영학과(야) 뷰티디자인학과(야)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ICT융합디자인학과(야)	서류평가 60% + 학생부(교과) 40%	전교과	없음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융합행정학과(야) 호텔외식경영학과(야) 뷰티디자인학과(야)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ICT융합디자인학과(야)	서류평가 60% + 학생부(교과) 40%	전교과	없음		
실기	실기우수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기고사 70% + 학생부(교과) 30%	국/영/수/사	없음	
		ICT디자인학부(주/야)	실기고사 60% + 학생부(교과) 40%		없음	
	농어촌학생	ICT디자인학부(주)	실기고사 60% + 학생부(교과) 40%	국/영/수/사	없음	
	특성화고교졸업자	ICT디자인학부(주)	실기고사 60% + 학생부(교과) 40%	전교과	없음	
	특기자 무용특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기고사 80% + 학생부(교과) 20%	국/영/수/사	없음	

| 2020학년도 수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단과 대학	학(부)과	전 공	수시 인원(정원 내)									수시 인원(정원 외)					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계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계			
			적성 우수자	교과 성적 우수자	특기 자	한성 인재	상상 SW 특기자	고른기회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	평생 학습자	실기 우수자	특기 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졸업자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졸업자		
크리에이티브인문 예술 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		56	25		25			12						118	10명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		27	16		25									68	4명					
	예술학부(주)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4	2		6	
현대무용																3	2		5		
	발레															4	2		6		
미래 융합 사회 과학 대학	사회과학부(주)		43	48		25			15						131	10명	5명				
	사회과학부(야)		44	45		25									114	6명	2명				
디자인 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19	22		5			3						49	4명	2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		20	24		5									49	1명	1명				
	ICT디자인학부(주)														72			4명	2명		
	ICT디자인 학부(야)	게임일러 스트레이션													20						
		뷰티디자인 매니먼트학과(주)			8		2								10					1명	
		뷰티디자인 매니먼트학과(야)			8		2								10					1명	
IT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부(주)																				
	기계전자공학부(주)																				
	IT융합공학부(주)		115	117		25	10		15						282	10명	4명				
	스마트경영공학부(주)																				
	컴퓨터공학부(야)																				
	기계전자공학부(야)																				
	IT융합공학부(야)		56	57		25	5								143	9명	3명				
미래 플러스 대학	융합행정학(야)														7					11명	
	호텔외식경영학과(야)														7					18명	
	뷰티디자인학과(야)														7					18명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10					15명	
	ICT융합디자인학과(야)														7					18명	
총 계			380	370	4	160	15		45		38	103	6	1,121	54	19	80	4	2	159	

* 미충원 이월 인원 포함(4명)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 모집
* 미래플러스대학의 경우 평생학습자·특성화고교졸재직자만 해당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 전공교육의 체계적 구축

HS Creativity & Convergence School(창의융합교육연구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첨단기술 중심의 창의융합교육 실시



각 전공분야에서 **첨단 기술분야**의 활용능력을 지닌 **창의융합 전문인 육성**

| 한성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

• 원서접수 : 2019. 9. 6(금) 10:00 ~ 9. 10(화) 18:00 • 입시상담 : 02)760-5800 * 자세한 사항은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참조